

이스라엘 10월 긴급 기도제목

#1

긴급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전시 상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테러리스트들과 전쟁중입니다.

오늘 현지시간 토요일 아침 7시 경 첫 로켓발사를 시작으로 수백발의 로켓공격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로 부터 이스라엘 전역으로 행해졌습니다.

200여명의 이스라엘인들이 부상을 입었고 6명의 사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공격은 현재진행형 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 지역의 피해 상황이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로켓공격이 아닌 하마스의 대대적인 선동 입니다.

아랍 거주민들에게 이스라엘인들을 무작위 공격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서 길거리에서 누가 공격할 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경계를 넘어오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탄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행글라이더를 타고 넘어오거나 바다를 통해 넘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질로 유대인들을 잡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모임을 삼가고 방공호에 머무르는 것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주변 아랍국과의 마찰로 번지지 않고 속히 그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

히마스는 이스라엘에 있는 아랍 이스라엘 시민과 동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웃 아랍 나라에게 함께 쫓겨 할 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의 혼합되어 있는 도시의 안전을 위해 기도 해 주세요.

저희가 있는 이스라엘 평야 지역은 아랍 마을 유대인 마을들이 함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지역은 레바논 헤즈볼라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옴키푸르 전쟁 50주년이 꼭차고 하루지난 오늘 이스라엘은 오전 6:30부터 현재 11시간이 지난 시간 가운데 로켓 공격과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명의 사망자가 확인 된 상황이고 900여명이 부상 당했다고 보도 되고 있고 70여명의 이스라엘 시민과 군이 가자로 납치 되었다고 팔레스타인 방송이 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를 다시 되찾고 테러리스트들의 행방을 모두 제거 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 스테룻 중심으로 가자 국경 접경 마을들은 현재 전기가 끊긴 상태로 테러리스트들이 집집 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납치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이자 토요일 안식일에 허무하게 뚫려 버린 국경에 많은 사람들이 경각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뿐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 하는 대규모 인질극으로 하마스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 리더들을 위해 기도 해 주시고. 지상전을 펼치고 있는 이스라엘 군의 안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 해 주세요.
(KRM 뉴스)

오늘 아침에 전쟁 소식을 모르고 있던 유환이가 일어나자마자 거실로 나오면서 꿈을 꿨다고 하면서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전쟁이 났고 자기 앞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꿈이었다고. 그런데 자기는 죽지 않았다고 하면서 옆에 있던 과자 썰리 파는 가게의 아랍 주인이 미사일이 떨어질 때 마다 요피!(좋아 잘했어!) 하면서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아랍인들은 서로 과자 사탕을 나누며 축하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아이들과 다음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꿈과 환상 그리고 예언의 은사들에 풀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시간 이 땅의 다음세대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일들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부탁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내일 휴교가 결정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전쟁과 테러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들에게 예슈아의 살롬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단의 공격을 역전시켜 진정한 살롬, 예슈아를 갈망하는 세대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4

이른 아침부터 전투기들이 날아다니는 소리에 잠을 깬습니다. 사망한 이스라엘인들의 수는 30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는 1590명 정도라고 합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민간인으로 집이나 길거리, 파티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포함 수십명이 인질로 납치되었습니다.

저희가 있는 요크네암시는 아직은 방공호로 대비하라는 사이렌이 울린적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는 휴교이고 전투기 소리가 지나간 동네는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저희 동네 출신의 젊은 군인이 26명의 전사자 명단에 속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랫집 이웃은 휴가 나왔던 아들이 원래 일정보다 일찍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 남쪽으로 어제 투입되어 갔다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동네의 젊은 아빠들도 예비군에 징집되었습니다. 늘 열려있던 공동 현관은 잠겼고 처음으로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에는 아랍 마을과 유대인 마을이 공존하고 있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 내 아랍주민들에게 쫓겨할 것을 계속해서 선동하기 때문에 이웃으로 자내던 누군가가 갑자기 공격해 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주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삼십분 전부터 북쪽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향해 박격포탄을 쏘아대는 등 하마스와의 연대로 인한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북쪽 도시 마을 주민들도 날아올 로켓 공격에 대비해서 방공호 근처에 머물러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 남쪽 전면전 전투와 하마스 근거지에서 이스라엘의 search & destroy 작전이 성공적으로 속히 끝나도록, 이 과정에서 무고한 양쪽의 시민들은 보호받도록
2. 북쪽 헤즈볼라와의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3. 잡혀간 인질들이 죽지 않고 속히 풀려나 돌아오기를
4.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아의 샬롬이 임하기를, 사망과 어둠의 역사를 생명과 구원의 역사로 역전시켜 주시기를

#5

십여분 전에 이스라엘의 북쪽 레바논과의 국경 지대에서 헤즈볼라의 공격이 있었고 국경 근처 혈문산 근처 마을인 이프타, 라뭏 납달리에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외교 수립 직전, 이를 반대하는 이란이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다른 이란의 동맹 테러리스트 그룹인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침범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법 개혁안을 이유로 내부적으로 크게 분열된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의 연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 합니다!

가자 지역의 경계가 아직도 진압되지 못했고 계속해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넘어와서 인근 마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쪽 사망자는 800명, 부상자는 24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군대 사령관들에게 지혜로운 전략들을 부어주십시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모두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